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지역경제 활력 'UP' 스타트업 육성서 찾다

### 전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가·창업지원기관 대표들과 간담회 열고 올 스타트업 활성화 행보

#### "2025년까지 총 1174억 규모 펀드 조성할 것"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창업가 간담회와 창업지원기관 대표자 회의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난 25일 개최하고, 2022년 스타트업 활성화 행보에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배출한 청년 창업가 20여명과 스스럼 없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청년 창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도 참석했다.

청년 창업가 간담회에서 ▲농·식품 아이템 테스트 공간 지원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시제품 제작 협력업체 활성화 ▲도내 창업기업 투자 지원 등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겪은 애로사

항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도 정책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송하진 지사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인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조성한 774억 원 펀드 외 2025년까지 신규로 400억 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투자생태계는 열악하므로 지역 투자생태계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모태펀드 확보를 통해 신규 펀드 추가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우수한 창업기업이 수시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 투자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로 스마트팩토리, AI 등 혁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주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북도는 신규사업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전환 분야 등 청년 기술창업 20개사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개사 육성에 나선다.

예비, 초기 단계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약 성장단계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해 추

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리를 옮긴 송하진 지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외 28개 창업지원 기관 대표자들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전북도는 기술창업 촉진과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에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체계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전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기술창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북도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정도 일자리정책방안이 전북도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송하진 지사 주재로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임 신경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북도 및 창업지원 기관과 지속 소통해 지역적 특색이 담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탄소 중립, 일상화, 디지털 경제, 사회적 전망 구축 등에 각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술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투자생태계 활성화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2022 청년 창업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K푸드 혁신성장 중심

### 13개 기업지원시설 확대·구축 식품산업 성장 견인 2단계 확대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대응키로

동북아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산업단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많은 식품기업과 국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13개 기업지원시설들이 구축돼 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포함 9개 기업지원시설이 구축 완료돼 창업 교육 및 공간 제공 시제품 개발·제작 맞춤형 인증 컨설팅, 고부가가치 HMR 산업육성, 고령친화 식품 제품개발 친환경 포장재 개발 지원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5단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국내 식품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등 4개 기업지원시설을 구축 중이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식품산업 전반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해 R&D 기술, 인프라 공유 생산·인력 연계 등 신화연 연계 상생 지원에 힘쓰는 '농식품 상품화 지원 통합공유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3개 기업지원시설을

구축 완료하고, 디지털 기반 신화연 플랫폼 구축으로 고도화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K-FOOD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올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투자경로 분석 결과, 관계기관 등 네트워크에 의한 투자 성공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규모 설명회 등 행사성 홍보는 축소하고, '투자유치 컨설팅단'을 재구성해 관심기업을 발굴, 고의향군·강소기업 중심으로 맞춤형 미니설명회 및 소규모 투자 상담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유치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방송 및 기획보도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성과홍보, 식품전문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기업지원사업 체험 홍보,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잔여부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연관업종·음료제조업 부지를

상대적으로 투자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 및 물류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70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는 분양 대상 면적 대비 72%의 분양률(116개 사 분양)을 보여 향후 2~3년 이내 분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조성에 6~8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2단계 확장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20대 대선공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이 포함됐으며, 지역공약과 현안사업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2단계 확장 규모는 92만 평으로 중·대형 제조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물류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단계가 구축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총조성 규모 162만평에 식품기업 300여개사가 입주해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업지원시설 추가 구축, 2단계 확장 등 국가식품클러스터가 K-FOOD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고창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혈압조절 기능성 인정

### 도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결심

전북도는 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혈압조절 효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기능성 원료 신규 인정 현황의 경우 식약처에서 1년에 10개 내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신청 현황에 따라 1개도 인정해 주지 않을 해가 있을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등록 조건 하에서 이번 고창군의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식약처 국내 기능성 원료 인정은 쾌거로 평가된다.

블랙라즈베리는 국내에서는 북분자로 알려져 있으며, 도내에서는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산딸기의 한 종류이다.

고창군과 고창군 출연기관인 (재)베리앤바이오품 연구소는 전북도, 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업해 진행한 연구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 실험을 통하여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24시간 수축기혈압, 이완 수축기혈

압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혈관 수축 유도 인자인 염증지표(혈중 IL-6 및 TNF-α)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까지 완료했다.

고창군의 이번 블랙라즈베리 식약처 원료 등록은 전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의 결실로 평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의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특성화된 식품기업을 적극 육성, 전북도의 식품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고창=김영식기자

3355 무주관광 100선 여행추천

오늘이 아름다운 무주

[덕유산 중봉]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